



NEWS 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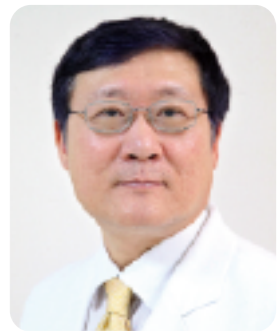
2020년 10월 05일 Vol. 385

2020년 임금협약 체결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9월 24일 병원 4층 중강당에서 ‘2020년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조성민 동국대학교의료원장을 비롯해 박노봉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 18명이 참석했다. 노사는 지난 8월 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개월간 총 4차례의 본 교섭과 4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며 지난 9월 15일 임금협약과 별도합의안에 잠정 합의했다.
조성민 의료원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아 원만한 합의를 하게 돼 매우 감사하다”라며 “이번 임금협약은 노사가 상생하는 방법을 고심해 합의한 결과로 지금보다 더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항상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통해 75.2%의 찬성으로 최종 합의안을 확정했다.



채석래 교수,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차기 회장 선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채석래 교수는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2020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국제학술대회(Laboratory Medicine Congress & Exhibition, 이하 LMCE 2020)에서 제36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차기 회장에 선임됐다. 이번 학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학술대회로 개최됐으며, 채 교수의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이다.
채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현재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감사 및 대한혈액학회 감사를 맡고 있으며, 대한수혈학회 회장과 대한진단혈액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보행재활로봇 우수 활용기관 공로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9월 17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재활로봇 시범 사업 활용 우수기관’ 공로상을 수상했다.
의료재활로봇 보급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보행재활로봇 치료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수상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의료재활로봇 우수 활용기관으로써 활발히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 산업 및 의료로봇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상지재활로봇(가밀로)과 외골격제어형 보행재활로봇(엑소워크)을 도입해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상하지 재활로봇 치료의 임상 적용을 통해 효과성과 안정성에 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 추석맞이 이벤트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는 추석을 앞둔 9월 28일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와 가족을 위해 전과 송편 등 명절 음식을 제공했다.
이날 이벤트는 코로나19로 인해 면회금지 등 출입이 제한된 병원에서 명절을 보내야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잠시나마 위로의 시간을 드리 고자 마련된 자리다.
말기 환자 돌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환자 가족은 “병동 안에서 이렇게 추석음식을 먹으며 명절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신 의료진의 따뜻한 배려에 많은 위로가 됐다”라며 감사인사를 했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는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스님, 자원봉사자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